머리글 / 3

1. 왜 지역적 특수성을 묻는가

민속문화의 지역적 특수성을 묻는다/ 임재해 13

1. 지역적 특수성은 어떻게 도드라지는가/ 2. 특수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/ 3. 농촌별신굿으로서 특수성이 보인다/ 4. 농촌탈춤으로서 특수성도 주목된다/ 5. 별신굿탈놀이로서 특수성이 흥미롭다/ 6. 지역적 특수성은 잃어버린 역사이다

용, 왜 지역마다 다른가/ 구미래 45

1. 기층문화로서 보편성을 확보한 용의 상징성/ 2. 지역적 성격에 따른 용신 인식의 다양성/ 3. 이야기 속 삶의 무대에 따라 달라지는 주인공과 그 짝들

성주의 본향은 왜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인가/ 이창윤 59

1. 성주의 출신지인 시골 마을 제비원/ 2. 제비원 가는 옛길 따라/ 3. 석불을 중심으로 한티재 너머 일대가 제비원/ 4. 양질의 건축 재료가 풍부한 제비원/ 5. 성주신앙의 성지로서 제비원 석불 경내/ 6. 제비원 석불 경내에서 본 성주의 두 모습/ 7. 성주에 내포된 풍요의 원리/ 8. 마무리

2. 제의 전통의 지역성을 묻는다

숟가락 여섯 개를 꽂고 지내는 꿩고개 마을의 조상제사/ 김호태 · 85

1. 우연하게 본 대보름 조상제사/ 2. 해안을 따라 남아 있는 대보름 조상제사/ 3. 여자가 주관하는 조상제사/ 4. 숟가락 여섯 개를 꽂고 지내는 제사

가가례로 보는 경기지역 제사의 특성/ 김시덕 103

1. 지역 연구의 단위로서 경기도/ 2. 가가례의 태동과 보편화/ 3. 3대 봉사의 전통/ 4. 홍동백서의 상차림은 노론의 전통/ 5. 젓가락을 시접에 굴리고(奠筯) 헌작해야/ 6. 어떤 절차로 지내나/ 7. 참사자는 영원한 관객인

가/ 8. 가가례는 곧 지역성

마을굿을 통해 본 허수아비의 지역적 특성/ 이주승 123

1. 허수아비,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/ 2. 농촌지역 방촌 마을굿에 나타난 허수아비/ 3. 어촌지역 대리 마을굿에 나타난 허수아비/ 4. 산촌지역 마령 마을굿에 나타난 허수아비/ 5. 허수아비의 지역적 특성, 왜 나타나는가

3. 풍물굿 양식의 지역성을 묻는다

길의 지역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길굿이 있다/ 권두현 141

1. 길을 갈 때는 꼭 길굿을 친다/ 2. 혼돈에서 시작되는 길굿 / 3. 길 형세 따라 길굿이 연주된다/ 4. 발길 목적에 따라 길굿이 다르다/ 5. 길굿은 문화권과 세계관을 반영한다/ 6. 길굿의 여러 얼굴들/ 7. 길굿 – 자연과 인간의 합일

굿거리와 가락에 나타난 필봉풍물굿의 특성/ 이종진 155

1. 필봉마을의 문화적 환경은 어떠한가/ 2. 판굿의 굿거리에 나타나는 지역성과 보편성/ 3. 가락에 나타나는 지역성과 보편성/ 4. 필봉풍물굿의 지역성과 보편성

양반과 상민이 따로 또 같이하는 소산동 마을굿/ 조정현 181

1. 풍물굿으로 엮어 가는 양반골 동제/ 2. 양반은 갓 쓰고 상민은 삼색띠 매고/ 3. 양반들의 상제당과 상민들의 하제당/ 4.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달린다/ 5. 대동을 향한 소산동 마을굿

4. 농경 관행의 지역성을 묻는다

아직도 손모심기를 선호하는 산골 농민/ 배영동 199

1. 사회적으로 선택되는 농업기술/ 2. 이런 산골은 별난 곳인가/ 3. 손모심기를 현대화하기까지/ 4. 기계모심기는 이런 점이 문제/ 5. 손모심기는 불규칙한 경작지일수록 좋아/ 6. 손모심기는 전통적인 품앗이로 해/ 7. 손모심기는 현금 없이도 할 수 있어

산골 농촌의 논물관리 어떤 점이 다를까/ 김재호 217

1. 벼는 농부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/ 2. 소 길마 밑에 논 한 배미가 있었네/ 3. 뒷도구가 필요하다 / 4. 통제 밖의 자연을 통제 안의 자원으로

강원도에서는 왜 아직도 두 마리 소로 쟁기질할까/ 이준석 235
1. 겨리는 어떤 것인가/ 2. 언제부터 두 마리 소를 부렸나/ 3. 두 마리 소를 어떻게 부리나/ 4. 왜 두 마리 소로 가는가/ 5. 강원도 지역의 겨리농경 전승 이유

5. 식성과 입성 전통의 지역성을 묻는다

안동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?/ 이상현 249
1. 한국인들은 모두 개고기를 먹는가/ 2. 안동사람들은 어떠한 음식을 즐겨 먹나/ 3. 안동음식의 특징은 무엇이고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나/ 4. 안동식혜, 건진국시, 헛제삿밥이 어떻게 안동의 향토음식이 되었나/ 5. 안동음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

입맛의 다양성이 사라지는가/ 권삼문 265
1. 깡통 '식혜'는 전통음료인가/ 2. 삭힌 고기를 먹다/ 3. '이밥'이 지배하다/ 4. 무엇을 먹을 것인가/ 5. 입맛만 잃어 가는가

살창고쟁이에서 안동 종부의 삶을 읽다/ 조희진 279
1. 안동 반가, 그 엄격한 규율이 옷차림에 묻어나다/ 2. 종가의 며느리 · 반가의 딸, 그럼에도 더운 것을 어찌하랴/ 3. 손수 자르고 꿰매며 수월한 시집살이를 기원하다/ 4. 살창고쟁이와 함께 여성으로 살다